

아이스크림 제조기

기존 발명품의 용도를 바꿔 훌륭한 발명을 한 것이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다.

소제회사로 산업용 제품만 생산하던 '일본경금속주식회사'는 '칠퍼스트'라는 냉축제의 용도를 바꿔 '돈비에'라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만들어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석권했다. 발명가는 이 회사의 상품개발부장인 우에사카.

우에사카는 1980년 경 칠퍼스트의 또 다른 용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서 우유팩을 뜯던 아들이 칠퍼스트에 우유를 떨어뜨리자 금방 얼어붙는 것을 발견했다. 우에사카는 탄성을 지르며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만들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서둘러 칠퍼스트 등근 캔을 이중으로 만들어 아이스크림 재료를 담아 보았다. 조금 후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졌다. 발명품이 생산되자, 금새 130만 개가 팔려나갔고,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되었다.

안경

확대경으로 쓰이거나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유리렌즈는 기원전 300년 경부터였다. 그러나 시력을 보정하기 위한 안경은 1280년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도미니크 수사 알렉산드로 텔라스피나와 그 친구인 물리학자 살비노 테질리 알망티에 의해 발명되었다.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 오목렌즈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 초, 1517년 라파엘이 그린 그림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안경을 끼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대안경은 1746년 프랑스의 광학회사 토티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원시와 근시를 모두 교정하기 위해 만든 원근 양용 안경은 1769년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하였다. 렌즈의 세기를 나타내는 데는 곡광도를 쓰며, 약호인 D로 나타낸다.

안전등

1800년 경 탄광의 광부들은 램프도 없이 어두운 갱 속에서 작업을 했다. 그 이유는 갱 속에 가득 차 있는 가스로 인하여 불을 붙이다가 폭발사고가 일어나 죽는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불을 켜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데서 작업을 하자니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위험했기 때문이다. 의논 결과 그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영국왕립학회를 찾아가 위험한 인화성 가스가 가득한 갱내에서도 안전하게 불을 켤 수 있는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데비는 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알코올램프의 뜨거운 불꽃이 철망 위로는 조금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힌트를 얻어 탄광용 등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안전등'이며 이 발명은 광부들의 많은 생명을 지켰다.